

꿈의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의 경험과 이에 따른 변화 탐색*

백 선 영**

본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은 바이올린 단원의 경험과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 관찰, 관찰 일지, 활동지, 인터뷰 등의 자료들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는 예술적인 면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단원들은 자신감 및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개인적 변화를 통해 사회성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삶에서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과는 달리, 단원들에게 학업의 기회비용은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 주제어: 꿈의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교육, 음악교육, 예술경험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경험에 대한 이해
 - 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한 이해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2. 연구 도구 3. 자료 분석
 - IV. 연구 결과
 - 1.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한 학생의 경험
 - 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변화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본 논문은 201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된 논문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I. 서론

최근 들어 ‘함께’, ‘더불어’와 관련된 의미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비단 분단된 정치적 이념에서의 관점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여러 학문의 경계를 탈피한 협력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전인적 인간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경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창의적 체험학습, 선택중심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과정중심평가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이 가지는 본질을 토대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강조되고 있다(곽삼근, 2016). 예술은 인간의 잠재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냄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편중된 지식 함양이 아닌, 균형 있는 발달을 촉진하여 인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한다(Davis, 2008). 따라서 예술은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이 중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 교육이다. 오케스트라 교육은 악기 연주를 통해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이끌어냄으로써 청소년의 과도기적 특성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악기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 삶을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장기범, 2005). 따라서 오케스트라 교육은 개인의 삶에 전인적 성장을 일으키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김희경 역, 2010). 이와 관련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를 국내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에게 예술경험을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과 함께 사회의 연속적 발달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a).

하버드 대학에서 실행한 프로젝트 제로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성취를 위한 중요 요소는 예술적 경험이라 주장한다. 즉, 학생이 실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Davis, 2008). 이러한 현 동향들은 프래그머티즘으로 대표되는 학자인 존 듀이의 교육철학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듀이는 행함을 통한 경험을 강조하며, 아동은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교육은 ‘삶’으로써(조경원, 김미환, 최양미, 장선희, 정광희, 2015), 경험에 의

한, 경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Dewey, 1938). 따라서 경험의 순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의 오케스트라 교육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예술교육이 삶에서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오케스트라 교육의 효과성 및 실태 등의 양적인 면을 도출하였고(박진홍, 2013, 2016; 윤성원, 2013; 장근주, 정수연, 2013; 최은심, 박철홍, 2016), 심층적인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 지도 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김현미, 2017; 이진숙, 2016)와 학생 오케스트라를 경험한 학생에 대한 연구(김영은, 이은희, 2013) 외에 미비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꿈의 오케스트라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김경태, 최동연, 이보림, 윤성원, 2017)에서는 교육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혜자인 학생의 의견이 부재한 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교육받은 학생의 의견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을 중심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경험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그들이 어떠한 예술적 활동을 경험했는지, 이를 통해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학생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둘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경험에 대한 이해

1) 경험의 의미

교육은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경험의 과정이다”(김재춘, 2012, p. 97, 재인용)라고 언급한 듀이의 교육 이론 핵심은 ‘경험’이다. 듀이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과 변화를 이루어 감으로써 발전적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하였다(Dewey, 1934).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이 경험이며, 이를 통한 성장이 교육임을

주장하며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과 예술을 연결하여 순환적인 구조로 설명하였다(김기수, 2004).

듀이 이전에 백지설을 주장한 로크는, 인간의 마음은 백지상태와 같기에 감각에 의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념이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인화, 노상우, 2011). 따라서 모든 지식은 감각에 의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지식은 경험으로써 검증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송도선, 2004). 듀이는 이러한 감각에 의한 경험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성과 감각이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음을 밝히고, 통합적인 활동 그 자체로써 경험을 설명하였다.

경험의 통합적인 활동에 대한 주장은 음악학자인 엘리엇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엘리엇은 ‘음악하기(musicing)’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인간은 먼저 생각한 후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이원론을 반박하였다(권덕원, 1999). 즉,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음악하기의 과정 중에 사고와 지식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듀이가 주장한 경험의 과정과 유사하다. 경험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현재 하는 행위 속에 사고와 감각이 함께 작동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의 과정 속에 발현되는 사고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 교육에 있어 음악하기를 하는 경험 그 자체는 중요하다(Elliott, 1995).

듀이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경험의 상호 작용성 및 연속성으로 설명하며 예술에 접근함으로써 경험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듀이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경험은 능동적 측면인 해 보는 것(trying)과 수동적 측면인 당하는 것(undergoing)으로 이루어진다(Dewey, 1916). 이때 둘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바로 사고하는 것(thinking)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의 요소라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타인의 바이올린 연주를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학생이 악기를 손에 쥐고 소리를 내보는 순간(trying)에 소리는 진동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달되고, 이때 학생은 오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리를 느끼게 된다(undergoing). 바로 이러한 관계성을 사고(thinking)하며 경험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듀이가 주장한 ‘경험’인 것이다. 즉, 듀이가 주장한 경험의 의미는 경험 속에 사고를 포함하며, 가치 있는 경험은 경험 속에서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Dewey, 1916).

2) 경험의 상호 작용성

인간은 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Dewey, 1916). 환경은 다변하며 이전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문제 사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 인간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평형상태를 만들고자 노력하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 즉 변화를 통해 안정과 균형을 이루어가며 발전하는 상

태를 경험의 상호작용성이라 할 수 있다(Dewey, 1934). 경험의 상호작용성은 단순히 환경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교변 작용의 결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볼 수 있다(김재춘, 2012). 또한, 경험은 경험 ‘속에서’, 경험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선, 예술적 활동이 일어나는 일상적 경험에서 시작하여야 한다(Dewey, 1934). 예술은 심동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예를 들어, 연주를 감상하고 감동을 받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학생의 현재 삶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축적된 문화적 경험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듀이는 이러한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을 경험 중 최고의 경험이라 주장한다(김기수, 2016).

3) 경험의 연속성

경험의 연속성이란 언어의 의미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적 측면을 의미한다. 시간적 측면이란 학습자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일어난 새로운 사고의 과정인 반성과 성찰이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험은 현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불평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는 맥락적 흐름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 미래에 경험할 것이 과거와 현재가 함께 연속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정정철, 2011). 이러한 경험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경험은 유동적이며, 항상성을 지니고, 발전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김기수, 2011). 예를 들어, 듀이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이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 행위라 해도 동일한 연주가 아닌, 다른 연주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주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감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경험을 풍부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정정철, 2011). 이러한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며 삶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성을 유지할 때, 듀이는 비로소 ‘하나의 경험’이 된다고 주장한다(박철홍 역, 2017).

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한 이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여, 2010년부터 소외된 사회 취약 계층의 아동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오케스트라 교육이 음악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은 음악을 통한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합주를 중심으로 상호학습 및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배우고, 전인적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a).

이를 통해 개인의 자존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을 지향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b).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는 시각과 가치관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전의 악기 교육은 전문적인 연주자를 길러 내기 위한 1:1 교육이 대부분이었고, 경제적 지원이 풍부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교육이기에 사회 취약 계층 아동들의 접근성이 낮았다. 그러나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은 사회 취약 계층의 아동들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사회 취약 계층과 일반 가정의 아동들이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a). 더불어 사회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영역에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표 1〉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7원칙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p. 32, 재인용)

교육 7원칙	주요내용
강사-아동 간 빈도 높은 만남	일주일에 최소 6시간 이상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강사와 아동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환경을 만든다.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와 아동은 긴 시간 친밀하게 만나면서 단순한 '강사-학생'의 관계가 아닌, '부모-자녀' 혹은 '친구' 관계처럼 서로 교감하고 소통한다.
즐거움	친구들과 하모니를 만들어 가면서 아동들은 '공부'로서의 음악이 아닌, '놀이'로서의 음악을 접한다. 재미와 도전과제가 있는 음악교육은 아동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상호학습과 리더십	아동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설정하고 연령이 높거나 연주 능력이 높은 아동은 어리고 연주가 서툰 친구를 가르쳐 줄 책임을 부여한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나누면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음악적 성취와 공연	참여 아동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나가는 단일 공동체를 경험한다. 특히,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연'은 아동들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노력한 결과를 타인에게 인정받는 중요한 활동으로 공연을 통해 아동들은 음악적 성취감과 자부심을 얻게 된다.
함께하는 연주	교육은 언제나 그룹 연주로 진행하며, 개별 레슨은 지양하고, 아동들은 그룹 연주를 통해 상호 협력 문화를 배운다.
참여와 통합	참여를 원하는 모든 아동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범위와 단원 수를 점차 확대한다. * 기회균등을 위해 문화적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비율을 70%로 한다.
사회 변화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음악적 성취를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15년도부터 강사로 재직한 꿈의 오케스트라 OO에서 단원들을 가르치며 발견하게 된 그들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며, 이에 따른 영향 및 변화는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함에 따라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관찰의 과정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탐색하기 위해 신입 단원보다는 연차가 고루 갖추어진 기존 단원으로 연구 참여자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인 파트 및 합주 수업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과 다양한 연차가 고루 갖추어져 있었던 시기를 고려하여, 2017년 2학기에 연구자의 담당 학생이었던 바이올린 단원 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연구 당시인 2017년도 기준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 총 40개 기관 중 사업 시작 5년 차에 접어든 꿈의 오케스트라 OO의 바이올린 단원 8명이며,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 (2017년도 기준)

	가명	성별	학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 연차 (2017년도 기준)
1	A	여	중2	4년차
2	B	여	중2	4년차
3	C	여	중2	3년차
4	D	여	중1	5년차
5	E	여	중1	3년차
6	F	남	초5	4년차
7	G	여	초4	3년차
8	H	여	초4	2년차

2. 연구 도구

1) 관찰 및 인터뷰 가이드 개발

본 연구자는 완전 참여 관찰자로서 자연스럽게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와 촬영 및 녹음 동의서를 연구 대상자 및 학부모에게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후,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수업 관찰은 2017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관찰은 주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꿈의 오케스트라 OO의 수업은 매주 월, 수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일일 2시간 30분씩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 당시인 2017년도에는 음악감독이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월요일은 파트 교육, 수요일은 합주 교육이 진행되었다.

〈표 3〉 2017 꿈의 오케스트라 OO의 요일 별 수업 구성

요일 및 시간		베토벤 (기존단원)		모차르트 (신입단원)	
월		현악	파트	신입단원	각 강사별 파트연습
16:30-19:00		관악	파트		
수		현악			각 강사별 파트연습
16:30-19:00		관악	합주(음악감독)	신입단원	후 재량에 따라 합주 참여

합주 교육 시에는, 연구 대상자 외 약 60명의 단원 및 강사가 있기에 녹화가 불가능하여 연구자의 관찰 노트 작성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수업하는 파트 수업 시에는 촬영 및 녹음하여 기록하고 분석하였으며, 쉬는 시간에도 녹음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발언과 행동을 여러 상황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정규 수업과 특별 수업에 대한 촬영 및 녹음은 총 10회, 약 30시간에 해당하며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되었다. 또한, 커리큘럼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이 끝나면 연구자가 개발한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통한 분석도 주된 연구 방법 중 하나였다. 모든 자료는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녹화 및 녹음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사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반 구조화된 인터뷰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이를 음악 교육 전공 교수 3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수정 후 초등학교 5, 6 학년인 2명의 본 연구 단체 소속 단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인터뷰 가이드를 가지고, 1회의 집단 인터뷰와 개인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표 4〉 인터뷰 가이드

영역	세부영역	질문
1차 집단 인터뷰	경험	1. 꿈오에서 경험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니?
		1-① 왜 그 경험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과거 경험과의 연계성 (과거+현재)
		1-② 그럼 이 경험(1-①)은 꿈오 이전에 경험했던 것(경험)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꿈오 이전에 했던 음악적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1-③ 그 과정들이 나에게서는 어떠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 무엇을 배웠는지,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나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등 -
		1-④ (언급한 경험에 대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었니? - 연습을 얼마나 하며 준비하였는지,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등 -
		꿈오 경험의 영향 (현재+미래)
		1-⑤ 꿈오의 경험이 다양한 활동에 어떤 역할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니?
		2-1.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한 음악적 경험들은 나에게 무엇일까? (집단 인터뷰 시 학생 개개인이 언급한 경험과 강사가 관찰한 학생의 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따른 심화 질문 과정)
		2-1-① (꿈오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지난번 집단 인터뷰 때 네가 언급했던 _____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2차 개인별 심층 인터뷰	변화	2-1-② 왜 그 경험이 특별히 기억에 남았을까?
		2-1-③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어? 할 때마다?
		2-1-④ 이 경험은 너에게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니?
		2-1-⑤ 그 경험을 통해 음악이 어떻게 느껴져? 생각해 본 적 있니?
		2-2. 꿈오를 들어오기 전과 지금 꿈오 단원으로서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아? (동기, 시작할 때의 타인의 반응, 꿈오 내 나의 역할성,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나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 등)

영역	세부영역	질문
		2-2-①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왜 바뀐 걸까? 왜 특히 꿈오를 하고 나서 변하게 되었을까?
		2-2-②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너의 마음속에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
		2-2-③ 변화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3. 꿈오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3-① 꿈오를 그만두고 난 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니?
		3-② 앞으로 꿈오의 활동처럼 음악을 배우거나 연주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혹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 -
		3-③ 꿈오에서 활동은 전체적으로 나에게 음악 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니?
		3-④ 꿈오에서 배우고 경험한 음악적 활동이 실생활에서 음악을 즐기며 연주하기에 어려움점이나 힘든 점은 무엇일까?

2)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질적 연구 중 자료 수집에 있어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면대면으로 만나 언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은 간단히 몇 가지의 질문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폭넓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자들의 생각과 삶, 그들의 환경 등을 연구 참여자의 관점으로 이해하기에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다 (Creswell, 2015). 이 중 반 구조화된 면담 기법은 구조화된 면담과는 달리, 중립적인 방법으로 질문하는 방식의 융통성을 지닌 기법이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위해 개발한 인터뷰 가이드를 토대로, 2017년 12월 9일 집단 인터뷰와 2018년 2월 9-10일 개인별 심층 인터뷰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들음으로써 잊고 있던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간접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개인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더욱 깊이 있는 생각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간 라포 형성이 매우 잘 되어있는 관계였기에, 개인별 인터뷰는 양일에 걸쳐 가능한 최소의 시간 차이를 두고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간 깊은 친밀감 때문에 인터뷰 시간이 끝나고도 다음 연구 참여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 또한 연구에 의미 있게 사용되

었다. 면담은 모두 사전 동의하였기에 녹음하였고, 인터뷰 후 2일 이내에 모두 전사하였다. 집단 인터뷰는 약 40분이 소요되었고, 개인별 심층 인터뷰는 40분에서 2시간 정도씩 소요되었다. 이를 모두 전사한 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크레스웰(Creswell, 2015)이 제시한 질적 연구 분석 방법 중 나선형 자료 분석 방법인 자료 읽기, 읽기와 메모, 범주화, 해석, 제시의 총 5단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터뷰 내용과 학생의 관찰을 통한 관찰지, 교사의 성찰 일지, 학생의 활동지, SNS 대화 등을 천천히 읽으며 핵심 개념을 메모하였다. 이를 자주 나오는 단어별로 묶어 코드명을 생성하고 범주화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험과 이에 대한 변화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 관찰과 인터뷰의 전사본을 연구 대상자에게 모두 배포하였고, 연구 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함께 참여함을 깊이 느끼게 하였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5〉 자료 분석 결과

테마	코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한 학생의 경험	1.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확장된 예술 경험 2.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시간 3. 타인의 연주를 관람함으로써 확장되는 연주의 경험 4.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선택함으로써의 기회비용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변화	1.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 2.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한 사회성의 변화 3. 생활로서의 음악교과의 확대 가. 향상된 음악 지식의 활용 나. 확장된 다양한 예술 활동 다. 진로에 대한 영향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은 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경험과 이를 통해 나타난 변화를 개인적 · 사회적 ·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한 학생의 경험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면, 신규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 교육을 경험하는데 이는 이전의 교육과는 달리 실제적이며,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확장된 예술 경험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뿐 아니라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기 탐색, 연주 관람, 캠프 등의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접함으로써 확장된 예술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악기를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연주하는 탐색의 과정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교수법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신입 단원이 되면 접하게 되는 신규 교육부터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꿈의 오케스트라 OO에서는 신입 단원을 위해 한 달 정도의 커리큘럼을 별도로 설정하여 신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이론교육에서는 실제 악기를 활용한 실음을 중심으로 음악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E: 처음에 신규 교육을 받을 때 종이에 음표 그리기를 했었고 몸으로 박자 맞춰서 소리 내는 바디 퍼커션을 배웠었어요. 박자 맞춰서 몸으로 소리 내는 바디 퍼커션이에요.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음악 책에 있는 노래 틀어 주는 게 끝이었는데

〈학생 E와의 심층 인터뷰 중〉

더불어 이러한 음악적 경험은 수업 안에서만 활용된 것이 아닌, 공연의 기회까지 제

공됨으로써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E: 그 배운 바디 퍼커션을 제2회 정기연주회 때 저희가 한 2-3분 정도 공연했었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공연까지 했고, 재밌게 배웠었어요.

〈학생 E와의 심층 인터뷰 중〉

또한, 신입 단원들은 한 달 정도 다양한 악기를 관찰하는데, 이는 각 악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최종적으로 악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생 E: 오케하기 전(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이전)에는 바이올린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연구자: 정말?

학생 E: 네, 학교에서 했던 거... 리코더, 리듬악기 이런 것 밖에 몰랐었어요.

연구자: 학교에서 접했던 게 그냥 다인 줄 알았구나.

학생 E: 네.... 맨 처음에 와서 악기를 보고 놀랐어요.

〈학생 E와의 심층 인터뷰 중〉

이를 통해, 신규 교육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제 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음악을 이해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시간

꿈의 오케스트라의 파트 수업은 다소 시끄럽고, 산만하기도 하였다. 물론, 악기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수업 중 ‘음’ 이외에 연구 참여자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는 면은 생소한 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꿈의 오케스트라의 파트 수업 시간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학생 B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 B: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고, 조용하면 대답하라고 뭐라 그러고...

연구자: 여기는 달라?

학생 B: 여기는 다르죠! 〈중략〉 여기는 뭔가 좀 자유롭잖아요. 애들하고. 〈중략〉 여기

도 뭐라 하기는 하는데, 학교와는 다르게... 학교에서는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뭔가 다르게 재밌는 느낌일까요?

〈학생 B와 심층 인터뷰 중〉

학생 E: 수업을 통해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악기 배우는 것도 그렇
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학생 E와 심층 인터뷰 중〉

연구 참여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수업 시간에서 다수의 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것
은 자유롭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특별하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이야기'
란 수업과 상관없는 친구들과의 잡담이 아닌, 수업에 관련된 질문과 도움의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단원들로 하여금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수업 참여 동기
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배경
에는,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강조하는 동료 교수 방법(peer teaching)이 있었다. 학습
자가 서로 교수자가 되어 배움을 이끌어 나가는 동료 교수 방법은 오케스트라 수업의
특징인 일대 다수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
용되고 있다(서지혜, 이진숙, 2014).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수업 시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a). 따라서 연구자는 파트 수업
중 동료 교수 방법을 학생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였고, 이
는 학생 B와의 추가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 B: 오케스트라에서 파트 수업을 하고 있으면, 많지는 않지만 옆에서 열심히 하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연습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수동적으로 행동하던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게 돼요. 모르는 건 옆 선후배들에게 물
어보고 하면서 상대와 대화를 현명하게 해내는 법이나 상대의 기분도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게 돼요. 학교에
선 팀 수행보다 개인 수행 비중이 더 높아서 상대와 대화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그 시간에 본인 수행을 더 준비하니까요.

〈학생 B와의 심층 인터뷰 중〉

중학생인 학생 B는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팀 프로젝트 수행평가 과정과 비교하여
꿈의 오케스트라의 파트 수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똑같은

단체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수업은 모르는 건 자유롭게 동료에게 물어 보거나, 서로가 알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학생에게 수동적인 면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면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학생 B의 언급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꿈의 오케스트라 수업환경은 ‘긍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3) 타인의 연주를 관람함으로써 확장되는 연주의 경험

꿈의 오케스트라는 연주자로서의 경험을 길러주기 위해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 환경과 동일한 연주의 경험뿐 아니라, 연주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단원들은 클래식이라는 한정된 분야 외에 뮤지컬이나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행사에 초청되어 연주할 때에 리허설을 하면서 함께 공연하는 다른 팀을 관람하거나, 꿈의 오케스트라만의 합동 연주 및 캠프 참여를 통해 나와 비슷한 단원들의 연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단원들은 확장된 연주 형태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학생 H: 솔직하게 말하면, 꿈오(꿈의 오케스트라) 다닌다고 해서 그냥 연주만 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다른 혜택도 있고, 같이 연주도 하고, 연주도 많이 보고
<중략>

<학생 H와의 심층 인터뷰 중>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학생 H는 이미 단원 이전에 다양한 기관에서 음악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연주를 하는 경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관람의 기회들은 희소하였기에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경험하는 관람의 기회들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다른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를 보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였다. 이는 2017년 10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관람을 다녀온 후 작성한 활동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다.

학생 A: 모르는 곡들이 많았지만 곡 하나하나까지 모두 멋졌고,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아리랑 랩소디, 아프리카 심포니 이 3곡은 우리가 했던 곡이어서 더 주의 깊게 듣게 되었다. 신세계 교향곡은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길어 새로움

이 많이 느껴졌고, 아프리카 심포니는 더욱 웅장하였다. 아리랑 랩소디는 원곡으로 하고, 우리보다 관악 소리가 매우 깔끔하여 놀랐다. 아리랑 랩소디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있었는데, 바이올린, 비올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고, 65마디에 나오는 솔로 부분을 피아노가 했다는 것에 조금 아쉬웠다.

〈학생 A의 2017 합동 공연을 본 소감 활동지 중〉

이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른 친구들의 연주를 관람할 때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함으로써 이미 경험한 연주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선택함으로써의 기회비용

보통의 오케스트라 교육은 월 교육비 외에 입단 시 입회비, 간식비, 개인 악기 구입비 및 연습실 대여 등의 다양한 비용을 각 단원이 부담한다. 그러나 꿈의 오케스트라는 출석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다양한 예술경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OO에서는 악기 대여 및 수업 중에 발생하는 악기 수리 비용 또한 무상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교육과는 다른 특별한 혜택이기에 입단을 원하는 학부모나 기관의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좋은 혜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회비용의 대부분은 학업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집단 인터뷰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학생 F: 다들 안 한다던데?

학생 A: 맞아. 학부모 간담회 때 세컨드 다들 빠진단데?

학생 B: J랑 K도 빠지고... 플루트에도 거의 다 빠지고

학생 E: 애들 거의 다 학원가야 하고 공부하려고 빠지는 거 같아요.

학생 B: 맞아 맞아. 다 학원가지.

학생 E: S도 작년에 그래서 그만두었고... 〈중략〉

〈2017.12.09. 집단 인터뷰 중〉

특히 단원들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진학하면서 공부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 2회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학생 A: 애들이 대부분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원 다닌다 하면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원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캠프, 연주회 관람 및 단체 활동을 의미). 저도 시험기간에 바쁘고...

연구자: 그렇구나... 너에게 힘든 점은 뭐야?

학생 A: 센터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많이 눈치 보이는 데... 늦게 가니까... 월요일날 수업이 있다 하면, 수업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중간에 늦게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수업이 연극이라서 괜찮긴 했는데, 만약 수학을 한다 하면은 저 혼자서 뒤처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보충? 해주셔야 하고 그러니까

〈학생 A와의 심층 인터뷰 중〉

학생 B: 그냥 어차피 할 걸 최선을 다하고 오자!!! 어차피 중학생이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 자나요...

〈학생 B와의 심층 인터뷰 중〉

학생 A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며 그곳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학업의 중요성을 알지만 쉽게 단원 활동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학생 단원들은 학업에 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단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기회비용들을 포기하고도 오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학생 A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학생 A: 그냥 연습하러 갈 때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학교 시간이라 겹치고 그러니까 시간은 촉박해서 서둘러서 가긴 가는데, 그만큼 빨리 가서 준비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게 좋아요.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하는 거가 좋고. 보람되고

〈학생 A와의 심층 인터뷰 중〉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전과 달리 다양한 예술적 경험들을 접하면서 예술의 즐거움을 느꼈고 내적 동기가 향상되었다. 더불어 이를 삶에서 확장시켜가고자 노력하지만,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단원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학업에 대한 기회비용은 단원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변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한 다양한 예술경험은 자신감 및 자존감 형성 등 내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사회성과 음악의 생활화 등 외적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

연구 참여자들은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며 스스로 발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보람은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단원들의 변화는 학생 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쉽게 발견되었다.

학생 A: 만족스러운 건, 저는 여기 와서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악기를 배우잖아요? 뭔가 평소엔 배우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게 좋아요! 배울 때는 힘든데, 막상 안 되는 걸 하면은 쾌감도 있고, 거의 스트레스 풀려 오는 거지!!

연구자: 스트레스가 풀려? (꿈의 오케스트라 수업을) 하면은?

학생 A: 에이 솔직히 쌓일 때도 있죠. 하다 보면은... 그런데 되면 그게 좋으니까

〈학생 A와의 심층 인터뷰 중〉

학생 A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원들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는 동료 교수 방법인 ‘함께’하는 수업 방식을 통해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쁨은 안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힘들과 어려움이 공존하지만, 그 과정을 해내는 자신을 발견하며 내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관찰을 통해 학생 F의 이러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관찰 초기, 학생 F는 다른 단원들과 달리 눈에 띄게 억지로 악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주로 강사의 즉각적인 지적을 받기 힘든 합주 수업 시 쉽게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다 같이 동시에 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에서 한참 후에 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나, 늘 바이올린이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자세로 악기를 연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곧 악기가 떨어질 것 같던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며 활을 자신 있게 쓰기 시작하였고, 연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파트 수업에서 세밀히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0월 30일 파트 수업 중 학생 F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행동의 변화되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의 수업은 2명씩 짝이 되어 동료 교수를 활용하는 것인데, 짝이 된 둘 중 나이가 어린 친구가 리더가 되는 규칙을 세웠다. 이에 짝을 정해야 한다고 했더니, 바로 학생 F가 자신은 혼자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중략> 그러나 게임처럼 짝을 정할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의견을 물어보니 다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느라 시끄러워졌다. 이때 학생 F가 적극적으로 목지 와 가위로 갈라 짝을 정하자고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평소와는 다른 학생 F의 태도는 참여 동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중략>

<2017.10.30. 월요일. 파트 수업. 관찰 일지 중>

동료 교수를 활용한 연습이 진행될수록 학생 F는 이전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자신의 잘 안 되는 부분을 먼저 토로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해 보겠다고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적극성을 표현하였다.

학생 F: 선생님 여기가 잘 안 돼요(머리를 긁으며)...

연구자: 포지션 이동을 해야 하는데... 너는 정한 번호대로 안 하는데? 다른 손가락 번호로 바꿀래?

학생 F: 아 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볼게요.

<2017.10.30. 월요일. 파트 수업. 녹화 전사본 중>

반면에 학생 B와 C는 연주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이야기하였다.

학생 B: 저는 항상 똑같은 한테 음악회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무대 서는 일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대해서 좀 공포감이 있고 긴장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도 많았는데 이걸 하면서 세 달에 한 번씩은 무대에 서게 되니까 공포증이 없어지고 보람도 되고

<학생 B와의 심층 인터뷰 중>

연주를 위한 과정인 캠프,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은 단원들에게 확장된 예술적 경험을 얻게 되는 기쁜 시간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주를 하는 경험은 연 1-2회 정도의 희소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함께 공포감, 실수, 두려움 등도 공존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긴장감 등은 커리큘럼과도 연관이 있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실제의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는 수준별 교육과 레퍼토리의 단계적 접근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인 꿈의 오케스트라 OO에서는 수준별 교육을 위해 신규 단원과 기존 단원을 구별하여 모차르트 반과 베토벤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서 배부한 수준별 악곡을 참고하여 수준이 다른 신규 단원과 기존 단원들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레퍼토리를 선정하였고, 대부분의 레퍼토리는 그동안 다루어보지 않았거나 좀 더 어려운 테크닉을 점진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도전적인 곡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 단원과 기존 단원들 모두 연주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 자신의 기존 실력보다 늘 '도전' 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감 및 긴장감이 공존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단원들은 '연주를 해내는' 성취를 달성한 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발전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 C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학생 C: 전에 힘들었던 게 사르르 사라지고

연구자: 사라져? 보상이 돼?

학생 C: 당연하죠!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게 다 사라지는 느낌? 전엔 되게 전엔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을 때... '아 그만둘까?' "엄마 나 그만둘까?" 하다가 "아니야 엄마 나 다시 할래!!" 진짜 공연하면 다 사라져요.

〈학생 C와의 심층 인터뷰 중〉

학생 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과정 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주를 해내는' 성취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은 긍정적인 자아 및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내적 동기를 심어주면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이끌 수 있고, 과정 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연주의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음악을 하는 과정 속에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한 사회성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성격이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와 기관 및 가정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유로워진 의사소통은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대인 관계 변화를 깊이 체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앞서 설명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학생 B: (여기 와서 변한 점은) 친구들도 사귀고, 성격도 바뀌고 너무 많은데요? 진짜 다니기 전에는 거의 친구가 없고... <중략>

학생 C: 둘이 다니기 전에는, 둘이 제일 친하고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둘 다 거기 다니고서 성격도 살짝 바뀌더니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서로 떨어져서 지냈다가도 지금도 잘 지내고 하니까 <중략> 전에 다니기 전에는 되게 조용하고, 되게 긍정적인 것도 없고 자신감도 툭 떨어지고 존재감 없는 애였고, 정말로 친한 친구 앞에서가 아니면 활발하지가... 둘이서만 있을 때 활발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처음 들어갔을 때도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다니고 나서 바로 바뀌었어요.

<학생 B&C와의 심층 인터뷰 중>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동료애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동안 학교에서 어려웠던 친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이는 집단 인터뷰에서도 쉽게 발견되었다.

연구자: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니?

학생 G: 캠프 갔던 거. 어... 언니들이랑 친해진 거...

학생 F: 캠프 간 거요. 그냥 애들이랑 새벽까지 게임하고 같이 놀아서 좋아요.

연구자: 그럼 너네 캠프 또 갈 거야?

학생 G&H: 네

<2017.12.09. 토요일. 집단 인터뷰 중>

꿈의 오케스트라의 캠프 및 합동 공연 등 특별한 단체 활동은 단원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함께 리허설을 하고 연주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통요소인 '음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음악'을 통한 의사소통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관계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고, 레크리에이션이나 식사시간 및 같은 방을 공유하는 등 프로그램 속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더했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학생 H에게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같은 사회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연구자: 학교를 안 다녔잖아. 한 번도 안 다녔니?

학생 H: 7살까지 다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안 다녔어요.<중략>

연구자: 그럼 꿈의 오케스트라를 와 보니 어때?

학생 H: 해보니까 단체 활동이라던 지, 연주회라던 지... 독주도 연주회 때 해 본 적이 있는데, 단체로 연주하는 거는,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해본 적은 있는데...〈중략〉 여기서 평소엔 못 해본 경험을 하고, 경험이 많이 쌓여서 협동심? 오케스트라는 혼자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잘해야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학생 H와의 심층 인터뷰 중〉

이와 같이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내·외적인 변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생활로서의 음악교과의 확대

(1) 향상된 음악 지식의 활용

연구 참여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 지식을 형성하였고, 이는 학교나 타 기관에서 음악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F: 선생님이 뭘 나눠 줬는데 그게 무슨 악기인지 다 듣고 맞추는 걸 하는 거예요. 서양이랑 현악이랑 나머지 서양 걸 다 풀고 다 해놓고 있는데 〈중략〉 하나 틀렸어요. 전 오보에 하나 못 맞추고, 오보에를 클라리넷으로 써 가지고 틀렸어요.

연구자: 그럼 오보에 소리 잘 구분 못해 F야?

학생 F: 네, 살짝 구분이 안 가 가지고... 5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딱 한 명이 오보에를 쓰고 나머지 전체는... 한 명이 딱 오보에 써서 맞추었어요.

연구자: F가 오보 소리 못 들어봤지? 우리 꿈오(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없어서? 그래서 틀렸나 보다.

학생 F: 그렇죠...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뒤에는 이제 그 노래를 들려줘서 무슨 현악인지 뭐 맞추는 거고, 밑에 우리나라 현악기를 쓰라는데 제가 서양악기를 다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렸어요.

〈학생 F와의 심층 인터뷰 중〉

초등학생인 학생 F는 음악 수업 시간에 경험한 다양한 악기를 듣고 구분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꿈의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학교에서는 악기 소리를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자신은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이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보거나 듣고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청각인지 및 식별 평가를 친구들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엘리엇이 주장하였던 '음악하기(musicing)'의 중요성과 같이, 스스로 악기를 다루어 보고 직접 소리를 체험하는 과정이 음악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확장된 다양한 예술 활동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함으로써 내적 동기가 생성되었고, 입단 초기의 수동적인 참여 동기와는 달리 예술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스스로 예술 경험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학생 A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되었다.

학생 A: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밴드가,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는 두 번을 하겠대요. 5월에 한 번이랑, 9월이나 10월에 한 번이랑. 그때쯤에 한번 있다고

연구자: 밴드? 너 무슨 역할을 하니?

학생 A: 지금은 베이스긴 한데 사실은 드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드럼이 지금 3명이나 되는 거예요. 중등 팀에서 중등 팀 고등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드럼이 3명이나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없대요. 그래서 양보하고 제가 베이스를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었어요.

〈학생 A와의 심층 인터뷰 중〉

학생 A는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밴드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예술 경험을 확장하고 있었다. 비록 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베이스를 하게 되었고, 만약 바이올린을 배운 경험이 없었다면 이러한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학생 A: (바이올린을 배워서) 쉽긴 쉬운데, 악보를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된 말이지? 하면서 코드 보면서 배웠는데, 코드를 보면서 치려면 칠 수는 있는데요. 악보에서 몇 번 몇 번으로 해서 누를 수는 있어요.

〈학생 A와의 심층 인터뷰 중〉

그러나 학생 A는 베이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전의 교수-학습 방법과 연계가 이루어

어지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학생 A: 근데 기호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근데 이게 뭔가 보는 게 다르다 보니
까... 근데 그게 악보마다 주법이 달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잡는 걸로
(코드를 외우는 방식) 배워서 어려워요... 대신 코드가 뭐니까 코드를 보고 잡
으라 하면 잡을 수 있어요. 대신 (코드 없이) 악보를 보면 잘 몰라요.

〈학생 A와의 심층 인터뷰 중〉

학생 A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경험 속에 배운 지식을 확장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계성의 한계에 부딪칠 때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따라
서 음악 교육의 과정 속에 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연계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계획하여 실행하는 음악 교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3) 진로에 대한 영향

학생 E는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난 후 여러 가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음악
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고,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생겼음을 이야기하였다.

학생 E: 저는 계속 이런 게(바이올린) 하고 싶어요.

연구자: 그럼 너의 생각이 언제부터 진로 결정을 하게 한 거야?

학생 E: 저는 이거 꿈오, 오케스트라 시작하고 나서 〈중략〉 그래가지고 엄마랑 이야기
해봤는데 바이올린 배우게 해준다고. 배우고 싶다니까 엄마가 해보자고.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학생 E와의 심층 인터뷰 중〉

학생 E는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여러 예술적 활동을 통해 음악적 흥미가 고
취된 것뿐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며 노력하는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학생 E와의 인터
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이외에 또
다른 음악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악기 교육이 1 대
1의 교육 환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꿈의 오케스트라 커리큘럼 또한, 음
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처럼 음악을 통한 교육에서 음악을 위한 교육으로의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은 학생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변화가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OO의 바이올린 단원 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관찰, 활동지, 관찰일지 등을 분석하여 제작한 인터뷰 가이드를 토대로 진행한 인터뷰(집단 인터뷰, 개인별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좀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는 예술적인 면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 악기를 통한 ‘실음’ 중심의 악기 교육 과정과, 연주의 경험을 위한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경험하는 특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7원칙 중 ‘공부’로서의 음악이 아닌, 재미와 도전과제가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연주’, ‘음악적 성취와 공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엘리엇이 주장한 ‘Musicing’의 중요성에도 연결된다. 따라서 음악 교육에서 좀 더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진짜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고민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존감과 같은 내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케스트라 교육을 연구한 선행연구(김영은, 이은희, 2013; 박진홍, 2013; 장근주, 정수현, 201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변화의 요인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방식인 ‘함께하는 수업’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료 교수 방법’이다. 이러한 결과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a)와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7원칙 중 ‘참여와 통합’ 및 ‘사회 변화’(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a), 그리고 진흥원의 연차 보고서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2014a; 2014b; 2015a; 2015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현재 교육은 다양한 교수방법 중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수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환경은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 교수-학습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개선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이다.

셋째, 단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술을 접하고 즐기는 음악의 생활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등 진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원들에게 학업의 기회비용은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학생 오케스트라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김영은, 이은희(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서 예술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내적 동기 변화에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삶에서 예술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예술 교육이 제공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연계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은 개인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현 교육의 중점인 ‘학생의 꿈’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그 이후 학생의 삶에서 지속시킬 수 있는 예술교육의 연계성은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미 장근주, 정수연(2013)의 연구에서 제언한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리큘럼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경험하는 학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 및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학생에게 맞는 유의미한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정철, 2011). 또한, 질 높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의 기능은 감시와 통제를 위한 목적보다,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학습대상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다음 과정에 발전적 영향을 주는데 기여한다(성태제, 2014). 따라서 교육의 과정 중에 학생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면이 축적된다면, 함께하는 교육의 단점인 학생 개인별 특성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전반적인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적인 면에서 전국적인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과정에서 각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필요하며, 현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와 같은 평가의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적용시키는 연구와 제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곽삼근 (2016). **현대인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파주: 집문당.
- 교육부 (2015).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 _____ (2018). 행복한 교육, 426(1).
- 권덕원 (1999). 데이빗 엘리엇의 실행 중심의 음악 교육 철학(Praxial Philosophy)이 음악 교육에 끼치는 영향. **국악교육**, 17(2), 10-37.
- 김경태, 최동연, 이보림, 윤성원 (2017). 꿈의 오케스트라 평가 내용 및 방법 개선. **음악교육공학**, 30(7), 117-142.
- 김기수 (2004). 존듀이『예술론(Art as Experience)』에 제시된 경험 의미 고찰. **음악교육연구**, 26(2), 37-75.
- _____ (2011). 논문: 존 듀이 예술철학의 음악 교육적 가치. **음악과 민족**, 41(12), 331-351.
- _____ (2016). 존 듀이의 자연성과 프래그머티즘 음악교육. **음악교육연구**, 45(2), 1-20.
- 김영은, 이은희 (2013). 학생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지**, 15(2), 121-152.
- 김재춘 (2012).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현미 (2017).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도자의 오케스트라 교육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예술교육연구**, 15(3), 57-75.
- 박진홍 (2013). 교사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음악교육연구**, 42(1), 127-150.
- 박진홍 (2016). 지역 거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방안. **음악융합연구**, 8(5), 30-36.
- 서지혜, 이진숙 (2014). **한국형 엘 시스템마: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일귀가기**. 서울: 마티.
- 성태제 (2014). **교육평가의 기초** (제2판). 서울: 학지사.
- 송도선 (2004). Dewey에 있어 경험과 교육의 관계. **교육철학**, 25(7), 61-77.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제2판). 서울: 박영Story.
- 윤성원 (2013).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이 학생의 인성에 끼친 영향. **음악교육공학**, 16(8), 137-159.
- 이인화, 노상우 (2011). J. Locke의 경험적 지식론 탐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5(3), 139-159.

- 이진숙 (2016). 사회취약계층 아동대상 오케스트라 교육에서 지도강사 경험 탐색과 요구: 꿈의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4(3), 163-181.
- 장기범 (2005). 오케스트라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음악과 비평**, 4(4), 5-13.
- 장근주, 정수연 (2013).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서울·경기지역 학생 오케스트라의 운영실태 조사. **음악교육공학**, 17(6), 97-120.
- 정정철 (2011). 학교교육에서 제공되어야 할 교육적 경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존듀이의 교육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3(1), 161-184.
- 정지영, 정지은, 이석규 (2014).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교육운영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9(3), 63-83.
- 조경원, 김미환, 최양미, 장선희, 정광희 (2015). **교육철학 및 교육사: 한국과 서양 교육의 이해** (제2판). 파주: 교육과학사.
- 주대창, 현경실, 민경훈, 양종모, 김용희, 조성기, 김지현, 권수미, 조대현, 박지현, 최진호, 임은정 (2018). **음악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은식, 권덕원, 문경숙, 석문주, 승윤희, 정재은, 정진원, 오지향, 최미영, 함희주 (2014). **음악교육 연구방법**. 파주: 교육과학사.
- 최은심, 박철홍 (2016). 초등학생의 오케스트라활동 경험이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敎員敎育**, 32(2), 161-18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평가(효과 측정) 2차 연구. (KACES-1121-R007).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4a).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4b).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효과성 연구**. (KACES-1480-R002).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5a).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교육강사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5b).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KACES-15).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6). 꿈의 오케스트라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7a). 꿈의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교육인력 연수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7b). 제45차 아르떼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_____ (2017c). 꿈의 오케스트라 지식공유 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Borzacchini, C. (2010). **엘 시스템아, 꿈을 연주하다: 빈민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약속한 베네수엘라 음악 혁명**. 김희경 역. 파주: 푸른숲.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제3판).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Davis, J. H. (2008). *Why our schools need the Art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_____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Minton, Balch & Co.

_____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_____ (2017). **경험으로서 예술 1**. 박철홍 역. 파주: 나남.

_____ (2017). **경험으로서 예술 2**. 박철홍 역. 파주: 나남.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Change of the Violin Student's
in the 'El Sistema Korea' Orchestra Program**

Baek, Seo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the violin student's in the 'El Sistema Korea' orchestra program. Participating observations, classroom observations, activity journal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recordings were taken in order to collect data for this research.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l Sistema Korea' orchestra education has allowed students to experience a variety of activities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in a more practical way before, which has contributed to expanding their artistic experience.

Second, the 'El Sistema Korea' orchestra education has improved the students'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and these personal changes have produced positive improvements in their social skills.

Finally, the students' interest to enjoy music in life, to major in music, and to enjoy art in life improved consistently through the 'El Sistema Korea' orchestra education. However, despite these positive factors, the opportunity costs to study was a decisive factor in forcing them to abandon their orchestra education.

Keywords: El Sistema Korea orchestra program, Orchestra of dream, orchestra education, music education, art experience

투고일: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25일(7월 30일), 게재확정일: 8월 19일